맞벌이 신혼부부 느는데 내 집 마련 쉽지 않네

호남통계청, 광주 신혼부부 4년간 어떻게 지냈나

맞벌이 비율 55.8%로 10% 늘었지만 주택보유율은 감소
금융권 대출 보유 비중 88.8%… '자녀 있다' 61.%로 줄어

지난해 6월 결혼한 직장인 강규형(32)씨는 광주시 북구 임동의 전세 3억원짜리 82㎡(32평) 크기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전세자금은 강씨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목돈과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돈에다가 은행에서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

원금 1억 3000만원짜리에 금리가 6%대로 매달 이자는 6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는 4억 중반이다"며 "아내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이 언제 가능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맞벌이 신혼부부는 증가했지만, 정작 '내 집'을 가진 신혼부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신혼부부는 4년 전보다 6% 정도 늘어 무려 90%에 육박했으며, 대출 잔액도 5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 어떻게 살고 있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주지역 초혼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중 맞벌이 부부는 55.8%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46%) 보다 9.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광주는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전국 평균(54.9%)에 비해 높았다. 전남지역은 50.6%로 4년 전(39.6%)보다 11%포인트나 증가해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맞벌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과거에 비해 가구별 소득도 증가했으나, 정작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줄었다.

광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는 51.5%로 4년 전 52.3%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4년 새 43.6%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내 집을 가진 신혼부부는 줄었음에도, 금융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이들의 대출잔액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많고, 집값 상승에 따라 전세값 역시 뛰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대출은 보유한 광주지역 신혼부부는 88.8%로 4년 전보다 4.9%포인트 늘었고, 전남도 86.3%로 5.4%포인트 증가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88.4%)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 2017년 79676만원이었던 광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은 2021년 1억3505만원으로 69.5%(5538만원) 많아졌다. 전남은 무려 89.1%(6000만원→1억1346만원) 증가했는데, 전국 평균 증감율 67%보다 높았다.

이 같은 증가는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의 감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61.5%(1만4714쌍)로 2017년 67.9%(2만695쌍)보다 6.4% 감소했고 전남은 63.3%로 6.3%포인트 줄었다.

평균 출생아는 광주가 0.88명에서 0.77명으로, 전남은 0.90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했다. 광주 신혼부부도 2017년 3만7534쌍에서 2021년 2만9596쌍으로 21% 감소했다. 전남은 4만699쌍에서 3만1158쌍으로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내 스타트업·중기 글로벌 진출 돕는다" 이스라엘 액셀러레이터와 공동 사업 돌입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8월 31일까지 R&D, Pilot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은 양국의 산업기술 협력을 넘어 이스라엘 액셀러레이터와의 공동 사업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스라엘 내 우수 액셀러레이터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달에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이스라엘 액셀러레이터 두 곳과 MOU를 체결, 국내 기업을 위한 협력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우선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기업 액셀러레이팅에 특화된 BSW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SW 그룹은 글로벌 기업의 기술 수요를 토대로 차세대 사이버보안의 주축이 될 한국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재단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전문 액셀러레이터 퀀텀허브(QuantumHub)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퀀텀허브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 수요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기술 실증, 해외 수요처 확보 등을 지원하여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협정' 조약을 근거로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지원, 재단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한-이스라엘재단은 지난 달 퀀텀허브와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성룡 재단 사무총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리아브 벤 루비 퀀텀허브 대표.

그동안 양국 정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8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총 374개 과제를 접수, 200개 과제 승인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과제당 지원금은 100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로, 최근 하반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R&D, Pilot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한편 인구 900만명의 이스라엘은 현재 9400개가 넘는 스타트업, 450개가 넘는 액셀러레이터와 양질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스타트업 블링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겉보다 본질에 치중하는 린(Lean) 스타트업 문화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공동 기획

광주은행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일회용품 제로'를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전 임직원이 참여해 '일회용품 제로'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비대면이나 구두 보고로 변경해 종이 사용을 줄였고, 폼보드나 현수막 대신 LED화면을 이용중이다.

또 직원들의 광주은행 캐릭터 'KJ BEARS'와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개인컵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친환경 실천 노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ESG 리딩뱅크로 도약하고자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ESG공헌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은행 임직원이 함께하는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과 지역사랑봉사단 활동,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운동, 사회공헌대상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광주시 동구청으로부터 청결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다음 주자로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임택 동구청장을 지목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JB금융그룹, 수재민 돕기 3억 성금 기부

JB금융그룹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JB금융그룹은 수해피해 지역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계열사인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등이 참여해 총 3억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성금은 수해 지역의 주택 복구, 수재민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또 전북은행과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광주은행은 피해 기업에는 최대 3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고객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양행 모두 최대 1.0%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금리 감면과 함께 대출금 연장과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금융지원 이외에도 수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세트 1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원 봉사대를 편성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 하시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JB금융그룹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복 삼계탕 '반값'

농협하나로마트 21~22일

농협은 중복을 맞아 21~22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닭고기와 삼계탕 '반값 특별할인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복을 맞아 증가한 보양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농협은 행사에서 목우촌 삼계탕, 닭고기 등 12품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복날을 맞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닭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축산물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0.23(-8.01)
↑	코스닥	931.60(+7.88)
↑	금리 (국고채 3년)	3.581(+0.038)
↑	환율 (USD)	1269.90(+4.30)

광주신세계, 풍암천원국시에 천만원 후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20일 광주시 서구 풍암천원국시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전달식에는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이강 서구청장, 추왕석 광주시 서구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했다.

풍암천원국시 사업은 서구청에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이 식사를 해결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우리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풍암천원국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하루 100그릇 한정 판매한다.

풍암천원국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수 한 그릇당 1000원, 이 외 주민들에게 3000원에 판매 중이다. 전달된 후원금은 식재료 구입, 나눔냉장고, 결식우려학생 대상 무료쿠폰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우리지역 서구에 일자리 창출과 착한가게 운영,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나눔냉장고라는 좋을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굶는 일이 없도록 광주신세계가 꼭 함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

중기중앙회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전달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기업승계의 가치를 바로 알리기 위한 자유주제로 공모 분야는 영상, 포스터, 슬로건 3개 분야다.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 입선 10명(팀) 등 총 48명(팀)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인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https://family-busine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